

진경산수화로 피어난 사찰 풍경

이호신 작가 <가람전경> 펴내

이호신 작가는 25년 동안 우리의 산사를 화폭에 담아왔다. 이처럼 '우리 산전 곳곳에 꽃처럼 피어난 가람의 향기'를 찾아 전국 곳곳을 누비며 완성한 수묵화를 담은 이호신 작가의 <가람전경>이 출판됐다.

작가는 이번 책에 83개 사찰 130여 점의 작품을 수록했다. 여기에는 그림 작품은 물론 각 사찰의 연대기와 작가의 단상을 함께 담아냈다.

작가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사찰 주변의 산을 수차례 오르내리며 산세와 계곡물의 흐름 지형을 살폈다. 그리고 사찰의 건축물, 조형물, 조경, 원림 등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머칠씩 절에서 잠을 자고 산을 오르내리며 여러 각도의 풍경을 화첩에 담아내다 보면 내가 완성할 그림이 눈에 보여요. 때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지리산 실상사 같은 경우는 그림을 완성하

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실상사는 편지 사찰이라 구도가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도법 스님을 만나 절에서 몇날 며칠 자면서 구도를 새롭게 잡아 완성한 그림이죠. 운주사 천불전탑은 8년을 걸려 완성했어요. 지금은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소장돼 있죠"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산사를 그려온 것일까? 그것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담아내 기록에 남기고 싶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한다. "사찰을 그리다 보면 가람의 배치 건축물 등 정확하게 그려내야 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또 저의 시각으로 풀어내야 하는 작가적 사명도 있죠. 이 두 가를 조율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불교 문화재를 온전히 그림으로 남겨 세상에 회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와 함께 지리산의 하루와 사계절을 그린 <지리산진경(智異山眞景)>도 함께 내놓았다. 정혜숙 기자



작가 이호신 씨는 20년 넘게 산사를 찾아다니며 작업한 작품들을 <가람전경>으로 펼쳐냈다.

“2013년 三毒과 無明 벗어나길”

무진본 스님 독자들에게 회호 전달



무진본 스님의 신년 회호

서해가 무진본 스님이 2013년 새 사년을 맞아 현대불교 독자들을 위해 신년 회호를 보내왔다.

“脱却三毒無明 众生心即是佛 (탈각삼독무명해 중생심환즉시불)” 무진본 스님은 “중생이 허물을 벗기 위해서 삼독과 무명을 벗어던지면 중생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2013년은 뱀의 해다. 뱀은 허물을 벗는 동물이다. 현대불교 독자들도 이처럼 삼독과 무명을 벗어던지고 환하게 마음을 밝혀 부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진본 스님은 새천년 희망의 용특별전, UN 평화금 조성을 위한 무진본 스님 특별전 초대 국제전 등 다수의 전시회를 펼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죽음은 하나의 문...닫히면 다시 열린다

윤회사상 모티브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개봉

'500년의 시간, 반복된 만남! 시간을 관통하는 거대한 운명!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매트릭스' 시리즈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앤디&라나 위소스키 감독과 매혹적인 스티븐 '향수'의 톰 티크베어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은 '클라우드 아틀라스'가 1월 9일 개봉했다.

서구의 감독들은 불교적 연기법과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500년 동안 여섯 생의 이야기를 펼친다. 영화는 무게감 있는 철학적 메시지는 물론 흥미로운 구성을 동시에 제공 관객들의 눈길을 끈다. 출연진도 화려하다. 톰 행크스, 할 베리, 짐 스테이스, 배우나, 벤 위쇼, 휴 그랜트, 수잔 서랜든, 휴고 윌빙 등이 출연한다.

6개의 이야기는 1849 'Mystery' -1936 'Romance' -1973 'Thriller' -2012 'Comedy' 2144 'SF' -2321 'Fantasy' 로 각각 구성된다. 유니버스 형식을 가지고 가지만 각각의 이야기가 나열된 것이 아니라 스토리의 토막토막이 계속 이어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도 독특하다. 각 이야기의 캐릭터가 연관성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독립된 이야기의 주위로 존재하며 이야기의 절정을 함께 이끌어 간다. 하지만 이야기 모두가 각각 분리되는 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각각의 이야기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퍼즐조각 맞추듯이 하나하나 해답을 준다.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국내에서는 배우나의 할리우드 진출작으로 제작단계부터 뜨거운 화제를 낳았다. 배우나가 출연하는 '2144 SF' 는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고 언어와 문화가 뒤섞인 미래세계 2144년 네오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세계의 발전이자 중심지인 네오 서울의 레스토랑 '파괴송'

에서 일하는 클론 종업원 손미. 그녀의 일상매일 19시간을 일하고 4시간만 수면을 취하며 비누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생명을 이어간다. 단순한 삶을 반복하는 손미는 그렇게 복제인간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미는 해주라는 순환인간의 도움으로 '파괴송'에서 탈출하게 되고 난생 처음 마주한 바깥세상에서 클론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랑을 하게 된다.

복제인간을 연기하는 배우나의 표정은



윤회사상을 모티브로 한 할리우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1월 9일 개봉했다. 영화는 화려한 영상미와 독특한 이야기 전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 영화는 한국 배우 배우나가 출연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아래 사진 중간이 배우나.

위소스키·톰티크베어 감독 연출
500년 동안 6개의 이야기 구성
과거 현재 미래 오가며 흥미 유발
배우나 복제인간으로 출연 '화제'

일관되게 담담하고 무표정하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감정을 깨닫고 복제 인간의 부당한 운명에 의혹을 제기하는 순간부터 그의 표정도 조금씩 흔들리게 된다. 그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해 가는 배우나의 연기는 흥미롭기까지 하다.

1936 'Romance'는 천재작곡가 프로비셔와 식스미스라는 두 남자가 금기된 사랑을 펼치는 이야기다. 프로비셔는 천재 작곡가 비비안 에어스를 찾아가 스승으로 삼고 그곳에서 작곡을 배우게 된다. 아름다운 심포니 '클라우드 아틀라스 6중주'가 탄생하기까지 감렬한 욕망과 로맨스가 펼쳐지지만 그에게는 애기치 못한 또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이처럼 19세기부터 근 미래까지 약 500

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여섯 개의 각기 다른 장르와 스토리는 한 편의 거대한 서사로 귀결된다. 그래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화려한 영상미, 압도적인 스케일로 사건의 전개가 조화를 이루며 위기와 절정을 맞이하고 결말까지 끌어가는 하모니가 하나의 이야기로 관통된다.

배우들의 '1인 다역 연기'라는 발상도 재밌다. 덕분에 관객들은 한 작품에서 이 모든 배우들의 다양한 변신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톰 행크스는 6개의 스토리에서 각각 6개의 다른 캐릭터로 분해 다시 한번 놀라운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인다. 할 베리는 진실을 파헤치는 당당한 매력의 여기자와 미래시대 다른 행성에서 온 여전사를 소화해낸다. 배우나 역시 복제인간 손미-451과 여왕의 아내 킬다 역 등으로 연기한다.

정혜숙 기자

6개의 각각 다른 삶이 펼쳐지지만 이들의 삶은 각각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다. 자궁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삶은 연결돼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가 악행을 범하고 선행을 베풀 때마다 새로운 미래가 탄생한다"

"죽음은 하나의 문에 불과하다. 그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만약 천국을 상상한다면 그건 완벽한 희망이다"

이처럼 영화는 우리의 삶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연기법 등 동양적 철학을 바탕으로 하지만 결국 통속적 결말로 향하는 영화는 할리우드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불교 철학의 옷을 입었지만 서구의 이분법적 시각에 머무는 한계성도 아쉽다.

정혜숙 기자

“박물관에서 배우는 인문학의 모든 것”

국립중앙박물관 수강생 모집 불교미술 등 명강사 100여 명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앞은 매주 활력이 넘친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하고 강의를 듣기 위해 물려드는 중후한 수강생들 때문이다. 수업 전 삼삼오오 모여 커피한잔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영락없는 대학생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제 3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박물관에서 찾는 제 2의 인생'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강좌는 불교미

술, 사상사, 미술사학 등 최고의 석학들에게 1년간 다양한 인문학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최고의 석학 100여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이번 강좌는 △국립박물관장을 역임한 지진길 경주박물관장 △신광선 민속박물관장 △이원복 광주박물관장 △곽동식 부여박물관장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한명기 교수의 한국사 △이선복 교수의 고고학 △이영래 교수의 '아시아문화' △윤용이 교수의 '도자기' △이태호 교수의 '한국문화' △배재호 교수의 '불교조각' △김병모 교수의 '인류학' △전경수 교수의 '인

류학' 등의 수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박물관 특설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씩 총 33회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진행되며, 큐레이터가 직접 설명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교육, 전국의 산재된 문화재들을 찾아가는 고적답사, 그리고 세계문화유산과 인류문명의 발생지를 찾아가는 국외고적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전문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며 모집인원은 화요일 200명 목요일 200명이다. 교육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회 수강생 답사 현장

교육관 소강당이다. 강좌 신청은 2013년 홈페이지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480000원이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www.fnmk.org)에서 볼 수 있다. (02)2077-9790-5 정혜숙 기자

조계종 건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공경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공경한 33가지

031-534-3373

선문염송 21권

국내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내 재배)

• 하수오 : 1 kg 3만원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 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 (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모종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m²(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릉 농장: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모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초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지죽염 125g 40,000원
가 루지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지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지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지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6-823-0483**
입금: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자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